

RaonAtti 5th Cambodia

4월 보고서



목 차

1. 4월 활동 이야기

2. 활동에세이

2-1. 프놈끄라운중학교-정석

2-2. 샬라아띠-희진

2-3. Staff 한국어 교실-유정

2-4. 유치원 교육-상우

2-5. 한글학교-세린

3. 빵퍼밥퍼 staff 소개

4. 너 왜 지원했니?

5. 4월 활동사진전

6. 시아누크빌 사진전

4월 활동이야기-도서관



우리는 2주에 한 번 씩 KB-다일 도서관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핑구'를 활용하여 시청각 학습을 통한 교육을 했다. 애니메이션 '핑구'를 선택한 이유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회 동생을 잘 보살피기, 친구 괴롭히지 않기 등의 공중도덕이나 보전에 관한 교육적인 내용이 쉽고 재미있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운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접할 수 없는 남극의 기후나 펭귄, 이글루 등에 관한 설명과 교육자료를 만들어 영상을 본 후에 그 날의 주제와 더불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극, 펭귄 등 접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높았기에 앞으로는 세계지도를 가지고 지구에 관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프놈끄라운 중학교 by 정석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월요일 수요일 아침마다 우리는 한국어로 하는 인사를 주고받고 수업을 시작한다. 산 밑의 마을이라는 뜻의 프놈끄라운 마을의 중학교 한국어 수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고민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는 뜨거운 감자다.

프놈끄라운 중학교 수업은 현지의 아이들과 직접적인 친분을 가질 수 있고, 한국어라는 공통된 주제로 소통할 수 있기에 내 나름대로의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난 수업을 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지만, 현실의 상황은 항상 매순간 변화하기에 수업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땀투성이가 되고! 주변이 시끄러워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집중하기 어려울 때조차도! 수업내용을 한자라도 놓칠세라 온통 나에게 집중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볼때의 짜릿함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수업이 재밌었냐는 말에 생긋 웃으며 “써바이(재밌어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힘들다.’ 라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한자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 얼마안가 나는 또 힘들다고 하겠지... 그래도 나를 한국말로 “선생님 선생님” 이라 하며 따라주는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부족한 초짜 선생님인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활동에세이>

쌀라아띠를 하기 전날이면 다들 참 분주하다. 하나의 수업을 혼자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쌀라아띠로 모인 아이들은 우리들 각자에게는 너무도 각별한 '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맡은 쌀라아띠 반 아이들의 일이라면 아띠들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그 아이들도 우리를 소중히 생각해 주는 것 같다. 밥퍼를 할 때 조용히 다가와 설거지를 도와 주기도 하고 멀리서라도 우릴 발견하면 뛰어와 오늘 수업이 있냐고 묻는다. 쌀라아띠를 계획할 때 영어나 수학 같이 공부 가르쳐줄까 고민했지만 캄보디아의 학교 정규수업에는 예체능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쌀라아띠 by 희진



쌀라아띠를 하는 날이면 체육활동을 하는 상우오빠랑 세린이는 땀으로 샤워를 해서 곧 죽을 듯이 체력이 바닥나버리고 한국어 수업하는 정석이 오빠는 목이 쉬어버리고 유정이는 실틈 없이 리코더 2반을 진행한다. 그리고 미술을 하는 나는 챙겨야 할 재료들로 짐도 많고 손도 엉망이 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지난주에는 우리반 '쩍파나'가 정성스레 인어공주에 하트를 수도없이 그려서 내게 수줍게 건네줬다. 색연필은 또 어디서 구해서 색칠까지 해왔는지.....노트를 찢어 그려 준 그림 한 장이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내 일기장에 고이 붙여놓았다. 아마 이런 행복이 있기에 나를 비롯한 아띠들이 쌀라아띠에 최고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다.



<활동에세이>

Staff 한국어 교실 by 유정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세시가 되면 밥퍼, 빵퍼, 사무실 등 다일공동체 센터 곳곳에서 일하는 현지 스텝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스텝 한국어 교육이 매주 1번씩 있었는데, 이들이 한국인 스텝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많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간다는 점을 고려해 원장님과 상의 끝에 일주일에 2번으로 횟수를 늘려 진행하고 있다.

아직 ㄱ, ㄴ을 배우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한 사람까지 실력은 각기 다르지만, 한국인들과 워낙 가까이 접하면서 살아가는 까닭에 한국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내가 맡고 있는 중급반의 경우에는 특히 스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욕이 높고, 오며가며 만날 때마다 배운 표현을 써가며 말을 붙이는게 여간 뿌듯한게 아니다.

물론 서로의 언어가 익숙지 않아 가끔 이해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소규모로 수업을 하다보면 그것마저 마냥 재밌는 웃음거리가 된다. 또 한국어를 크메르어로 열심히 설명하다보면 우리에게겐 수업준비가 곧 크메르어 공부이고 수업이 회화 연습이 된다. 요즘에는 꼭 수업시간이 아니어도 궁금한 한국어나 크메르어가 있으면 서로 물어보면서 서로에게 언어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다.



<활동에세이>

유치원 교육 by 상우

4월은 아이들을 가장 적게 만난 달이다.
왜냐하면 쫄츠남 연휴로 인해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학교가 2주간 방학
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달 라온아띠 활동은 다음과 같다.

- 4월 1주차 - 미니 운동회
- 4월 2주차 - 쫄츠남 연휴
- 4월 3주차 - 풍선놀이
- 4월 4주차 - 키·몸무게 재기



키·몸무게를 재기위해 센터로 온 아
이들은 이곳에 온 영문도 모른 채 천
진난만하게 놀이터로 뛰어갔다. 그것
도 잠시, 측정을 시작하기 위해 선생
님들이 아이들을 모으고 줄을 세웠다.
그때 아이들의 눈빛을 통해 처음 보는
기계에 대한 신기함과 두려움이 교차
하고 있었다. “찌이잉~탁” 측정 받
는 동안 아이들의 눈동자는 커져만 갔
고, 그 안에 있는 눈망울은 순수하고
여린 사슴의 눈망울처럼 보였다. 이
곳의 아이들은 연령에 비해 키와 몸무
게가 표준보다 미달인 아이가 많았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보다 체구는 더 왜소할지
몰라도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오히려 더 해맑고 행복해 보인
다.

이렇듯, 캄보디아 밥퍼가 아이들에겐 한 끼의 식사이지만 이 한
끼의 밥을 먹으면서 얻어지는 영양과 에너지가 아이들을 더 건강
하게 자라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한글학교에 간다. 한글학교는 한국교민자녀를 위한 학교로 외교부에서 교과서를 지원받아서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 학년씩 담임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토요일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며 무엇보다 라온아띠로서의 정체성과 한글학교에서 바라는 역할이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어느 일이든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맡는 것이 맞는 일이고 한글학교 측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준다는 조건 하에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활동이 중반을 지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한글학교 아이들은 유별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고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가이드를 하셔서 바쁘신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한글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 아이들이 '대한민국' 이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이 든다.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게 된 한글학교가 이제는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새 다음 수업을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공부하고 아이들과 친해질까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딱 반이 남았다. 남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작이 힘들었던 만큼 아이들과의 헤어짐도 더 힘들 것 같다.



빵퍼밥퍼 Staff 소개

밥퍼!



Mr. 오운

못 다루시는게 없고 못 고치는게 없는 캄다일의 맥가이버~ 문제가 있는 곳에 그가 나타났다면 만사 OK~! 훈훈한 아저씨 미소가 일품인 부드러운 매력의 소유남이지만 품절남이기에 많은 여인들이 아쉬워 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멋진 아저씨입니다...혹시 아띠들도?ㅋ

Mrs. 스테이멈

다일의 밥줄이자 어머니인 만능 요리사~! 매일 매일 500-600명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한 요리를 준비하느라 매일 바쁘시지만 언제나 요리의 맛은 엇짜!(최고!)미모도 빼어나시고 요리도 잘하시는 스테이멈의 남편이 바로 오운아저씨랍니다. 참 잘 어울리죠?ㅎㅎ



Mrs. 른 스테이멈

우리 아띠들이 가장 좋아해서 말리지 않으면 다 먹어버릴듯한 전설적인 계란말이의 요리사! 다일의 작은 어머니인 른 스테이멈에게 우리는 계란말이를 한점이라도 더 먹기 위해 항상 붙어 있다





Mr. 노부야

애 아빠지만 웃는 얼굴속엔 아직도 청춘의 개구쟁이 기질이 남아있는 노부야! 원래 이름은 노부야 이지만 사람들이 그냥 “야~” 라고 부르면 언제나 예의있게 “발” 이라 대답하며 다가오는 그는 언제나 열심쟁이이다. 한국어 공부도 너무 열심이어서 가르치는 유정이가 벅차할 정도지만, 때로는 우리가 틀린 캄보디아 말을 정확히 지적해 주기도 하는 숨겨진 선생님이기도 하다. 빵퍼의 미녀 스텝인 사로앗을 사로잡은 그도 역시 멋쟁이!!

쏘톤

그가 나타나면 아띠걸들은 도망가기 바쁘다. 밥퍼스텝의 막내이자 완전 개구쟁이인 쏘톤의 특기는 아띠걸 골려주기와 머리세우기. 그의 심한 장난에 가끔 아띠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밥 짓는 솜씨 하나만큼은 최고이기에 밥퍼의 제일 중요한 밥짓기를 담당하고다. 아띠 남자들이 그의 머리세움을 따라해보고자 몇날 몇일을 노력해봐도 그의 번개머리는 따라할 당췌 따라할 수가 없다.



빠으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튼드라와 포터를 솜씨 좋게 운전해 주는 멋쟁이 드라이버인 빠으. 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이가 어려 점심시간 밥을 먹으로 오기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발이 되기 위해 오늘도 빠으는 트럭을 몰고 아이들에게 달려 갑니다. 참, 그의 패션 센스는 스텝들 중에서 최고랍니다. ^^



빵퍼!



사로앗

그녀가 웃으면 빵퍼가 환해진다. 진정한 크메르의 미소를 간직한 사롯은 한아이의 어머니이자 빵퍼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슈퍼우먼이다. 얼굴도 피부도 하얗서 요즘에는 우리 아띠들보다 하얀 피부 때문에 아띠 걸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사로앗! 그녀의 요즘 걱정은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곧.. 아띠들의 진정한 질투가 시작될듯하다.

사로운

언니의 미모에 질 수 없다. 묘하게 뒹뒹하면서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로운. 요즘 부쩍 예뻐지고 있기에 애인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집요한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는 사실 부끄럼쟁이~ 한국어 수업시간에 물어본것을 대답하지 못할 때면 얼굴이 금세 빨개지곤 한다. 궁금한것도 알고싶은것도 많은 그녀의 귀추가 주목된다.



시켄

사람은 이름따라 산다고 했던가? 정말 시크함이 뭇지 몸소 보여주는 우리의 시켄은 춤을 너무도 사랑하는 댄스쟁이. 빵퍼의 일이 일찍 끝날때면 빵퍼의 공간은 곧 그녀의 무대가 된다. 빵퍼를 울리는 한국댄스노래 속에서 우리는 시켄의 춤에 빠지고 시켄의 춤에 하나가 환호하며 하나가 된다.



무이

그녀의 이름은 매우 어렵다. 아무리 이러저러한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말해봐도 언제나 결과는 엇대(no)! 과연 한국인의 발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 스텝들이 놀 때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무이는 사진 찍히기가 취미이다. 다일의 벽들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들 속에는 언제나 무이가 있다면 믿어지시나? 못믿겠다면 와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제니

매일 우리를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제니는 빵퍼의 웃음매니저이다. 다른 스텝들의 장난에 항상 걸려들어 화가 날 만도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화내는 모습은 아직 본적이 없다. 아띠들이 있어서 "씨바이" 라는 제니. 우리의 갈 날을 세어보며 벌써 많이 지나서 아쉽다고 하는 말에 콧날이 시큰해 진다.



필리

항상 아띠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며 장난도 제일 많이 치는 필리는 일란성 쌍둥이이다. 센터 앞에 있는 음료수매점에서 일하는 동생인 필라와 너무도 똑같이 닮았기에 방금 전에 빵퍼에서 빵을 만들고 있던 필리를 보고 나왔는데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센터 앞에서 음료수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센터에 처음 온 사람들은 무조건 놀라게 된다. 나는 센터와 상점으로 투잡을 뛰는 줄 알았다.ㅋㅋ





보파

빵퍼스텝들 중 유일한 남자인 청일점 보파. 캄보디아 말로 보파는 꽃이기에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의 잔잔한 미소를 보면 이름이 너무도 잘 어울린답니다. 빵퍼스텝에서 꽃!미남을 담당하는 보파의 매력은 바로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이지요. 선한 인상과 어울리지 않는 매력적인 팔 근육은 그의 Keypoint. 그가 오븐에서 빵을 꺼낼 때를 놓치지 마세요~!

Office



파리

항상 자신을 말린이라고 소개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파리~! >0< 현지스텝들이 한국어를 배운 뒤 자신을 어떤 곤충(?)으로 놀리는 게 영~ 불만이라는 이 친구는 현지스텝들 중(찐눈?) 가장 한국말을 잘 하는 친구랍니다. 영어도 잘해서 오피스의 통역사로 불린답니다.

필라

사무실에 가면 항상 함박꽃과 같은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필라~ 팀장님과 함께 다일 결연아동에 대한 관리와 서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웃어서 별명이 헤필라라네요.



전도사님!!

민싸이

11시 점심 배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500-600명의 아이들의 눈과 귀가 그를 주목하며 그의 질문에 그리고 그의 외침에 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센터를 찌렁찌렁 울린다. 호탕한 웃음이 멋지지만 한번 터지면 멈출 수 없이 웃어대는 민싸이 옆에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그의 웃음에 빠져든다.



라멧(

말없이 항상 도서관 1층에서 사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그의 주변에는 아이들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언제나 아이들과 즐겁게 이야기 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라멧은 진정한 아이들의 대통령!!

너, 왜 지원했니?

라운아띠 5기 캄보디아팀, 라운아띠를 만나게 된 순간과 라운아띠를 왜 하려고 했는가.

그 솔직한 이야기들이 시작된다!

상우 : 무슨 주제로 얘기해야 되는데?

세린 : "라운아띠에 왜 지원했니?"

상우 : 너 왜 지원했는데? 너, 너부터 얘기해!!

유정 : 우리가 지금 얘기할건, 자기가 라운아띠에 왜 지원을 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 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_^ 다들 어떻게 알고 지원했어 처음에?

세린 : 나는 봉사활동 하는데가 YMCA였으니까, 거기서 들었지. 라운아띠에 대해서.

유정 : 들었을 때 바로 '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세린 : 응. 난 그 순간 휴학을 결정했어. 근데, 4기 했을 때 떨어져서 휴학 못한거야. (웃음)

정석 : 유정이 너가 제일 먼저 안거 아니야?

세린 : 그렇지, 넌 3기때 지원을 했으니까.

유정 : 아, 제일 선배네 내가?

^^ 상우 : 니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나 생각을 해봐,

(일동 폭소)

세린 : 왜 두 번씩이나 떨어진 거ㅋㅋㅋ

유정 : 주제의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잖아!!, 왜 지원했냐를 물어봐야지 왜 떨어졌는가를,

상우 : 하자를 잘 고친거네!

유정 : 그렇다기보다는.. 불쌍해서? 하하하.

나는 알기는 2기때부터 알았어. 2기때 포스터보고 해야지 생각했다가 3기때 지원을 하게 된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아셨는지~? 희진이 너는?

희진 : 나는 시험기간이었는데, 그 때 시험공부 안하고 이거 쓰고 있었어.

유정 : 하필 진짜 시험기간이야. 상우오빠는?

상우 : 나는 인터넷에서 보고 했지. 2009년, 한 9월쯤에 라운아띠 보고 즐겨찾기 해놨지. 아 이거 다 음에 가야겠다,

정석 : 나도 본거는 4기 모집할 때 본거같애. 내가 대학내일을 보니까. 근데 그대는 내가 학교 다니고 너무 바빠서 지원할 생각조차 못했어. 이전 그냥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거구나, 하고 넘어갔었어. 특히 30명밖에 안뽑네? ㅋㅋ

유정 : 그럼 좀 더 들어가서, 그렇게 알게 됐잖아. 세린이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딱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 왜 그런거 같애?

세린 : 나는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것도 있고. 내가 봉사활동을 한 영역들이 있잖아, 이것도 한 가지였던거지 내가 해보고 싶었던. 자, 그 다음?

유정 : 사실 5개월이라는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나는 별 어려움 없이 했거든. 근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가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거야.

정석 : 나는 면접 볼 때도 얘기했는데 미쳤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너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야돼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학교를 그렇게 다녀서 뭐할거냐고 그런 사람 많았어. 근데 나는 대학교 있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었어.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였던게, 내가 작년에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어 국내에서 하는. 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었는데, 그런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 그래서 나도 세린이가 말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렇게 해봤으니까 해외에서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희진 : 나는 이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런건 아니었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TV 프로그램이나 책 같은거 이런거 좋아했어.

빈곤한 계층이나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들 같은거 되게 좋아해서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그리고 다 큐 이런거 봐도 되게 잘 울었다?

세린 : 그래?

희진 : 어, 그랬어. 여기와선 한번도 안 울었지만 신기하게. 나만 안 울었다 여기서?ㅋㅋ

여기 되고 나서 친구들한테 나 됐다고 말했어. 그랬더니만 친구들 반응이 "어 너 원래 그런거 좋아하니까" 그러는거야. 그래서 그런 말 듣고 내가 봉사 이런쪽을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 때 들었어. 관심이 있었구나라는걸. 그냥 되게 이끌리듯이 자연스럽게 했던거 같애.

세린 : 상우오빠는?

상우 : 난 전역하고 나서 취미생활이 없었어. 그래서 시작한게 봉사활동이었어. 국내 봉사활동을 하다가 해외에서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왕 할거면 2주보단 한달이, 한달보단 5개월이 더 좋겠다.

유정 : 난 약간 그런것도 있었던 거 같애. 내 자신이, 얼마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우 : 스펙 때문에 했다고 그래 ㅋㅋㅋ

유정 : 나는 그게 이해도 안되고, 전혀 그렇지도 않아. 이게 무슨 스펙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희진 : 진짜 스펙을 생각한다면
여기 못 와.

상우 : 근데 스펙 때문에 하는거
냐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 너네
안 들어봤어?

정석 : 스펙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짧은거 다녀오고 남는 시간에 다
른 스펙을 쌓는게 낫지.

희진 :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한
스펙은 안되는데, 나를 만드는 그
런,

세린 : 그래. 나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정석 : 그렇지. 나 자신을 위한 스펙이지.

유정 : 5개월동안 다른 나라에 살
잖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다섯명이서 함께 잘 살아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
던 거 같고. 원래 그런걸 좋아했
던거같애. 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가치관도 내가 살아가서 누군가
한명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고 싶은거.
그게 나한테는 행복한 일인거야.
내가 보람을 느낀다는 차원이 아
니고 그냥 내가 재밌고 즐거웠던
거 같애 그런걸 하면. 그래서 이
것(라운아띠)도 하고 싶다는 생각
을 했었고.

상우 : 그래, 재밌으니까 하는거지.
재미없으면 하겠어?

세린 : 그래, 내가 재밌다고 생각
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거같아.
내가 저걸 하면 재밌고 행복하겠
다.

정석 : 나도 뭘 배운다는게 아니
라 재밌고, 행복할 것 같았어.

상우 : 그렇지, 남들은 취업공부다
영어공부다 삼매경인데, 우리는
약간 돌아가는거지.

세린 : 더 많은걸 보고 가는거야.

상우 : 산도 보고, 냇가도 보고 그
렇게 간다고 생각해.

세린 : 아유, 상우오빠. 마무리 멘
트는 끝내주게 잘해요.

상우 : 남들은 산을 올라가는데
땅만 보고 올라가 계속. 근데 우
리는 양옆을 보면서, 저 멀리있는
새도 보고 나무도 보고.

희진 : 어, '브리다' 에 그 내용
있었는데.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 하나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고, 하나는 정원을 만드는 사람이
래. 건물을 짓는 사람은 몇 년동
안 거기에 몰두해서 정말 열심히
건물을 지어. 그건 끝이 있어서
다 하고 나면 자기가 만든 그 건
물안에 갇혀. 근데 정원을 만드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
근데 그 정원은 끊임없이 계속 성
장을 한 대. 그래서 정원을 꾸미
는 그런 사람..이 있대.

일동 : 오~

유정 : 오 너희 대단한데?

궁금했다. 라운아띠 5기로 선발되어 '캄보디아' 라는 한
나라로 오게 된 우리 다섯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
떤 마음으로 오게됐는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지
만, 막상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대화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전 앞으로
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건, 지원한 이유는
각각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
눌 수 있어 행복하고,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거다. 건물보다는 정원을, 동전보다는 주위를
보고 싶은 당신이라면, 지원자격은 이미 충분하다.

4월의 베스트 커플은?!?!?!



후보1. 바가지 머리
종결자와 함께!!!



후보2. 누가 이 사람을
한국사람이라 하는가!



후보3. 여기선 나름 기다리 ㅠ ㅠ



후보4. 내가 분명 더
뒤에서 찍었는데...이
착시효과는 뭐지?



후보5. 밥솥이 나
의 유일한 친구,
밥솥아가씨



많은 식구들과 함께!!
사랑과정이 넘치는
캄보디아로 오세요!!!

2011년 을 여름을 집어삼킬 초특급 스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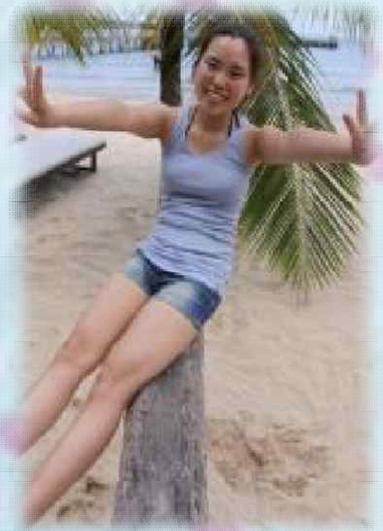
기대면 잔다. 아니면 먹는다!



난 외롭지 않다!!



나는 브이를 하는게 아니다.
이건 젓가락이다!!!



나는 브이를 하는게 아니다!
이건 바로 \$20을 달라는 표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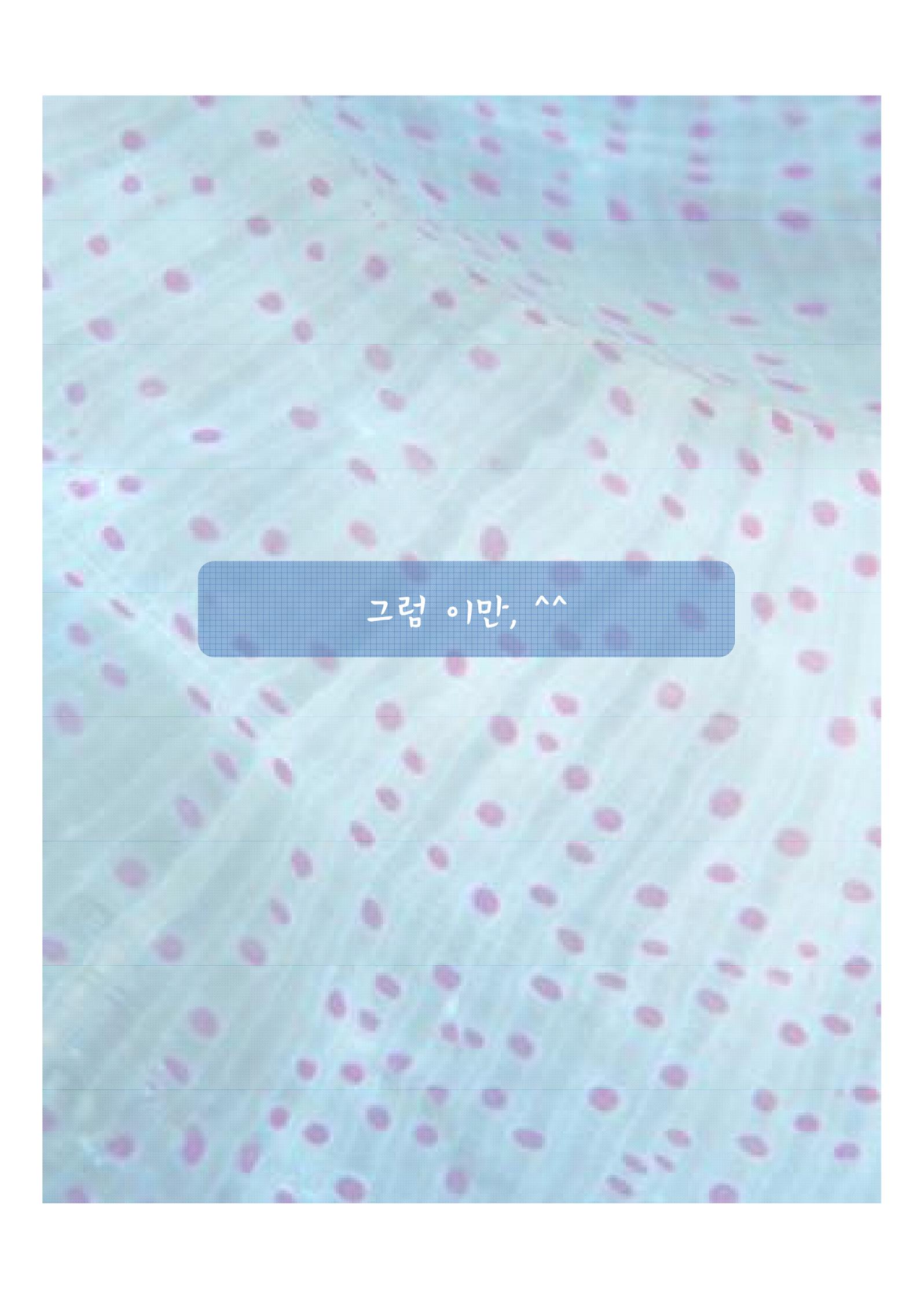
나 요즘 돈 떨어졌다.



실제 툭툭이 추격씬!!!

먹고 또 먹는 캄보
디아팀을 뒤쫓아오
는 어둠의 그림자는
과연..

나는 너가 지난 4월에 한 일을 알고 있다.

A microscopic image of plant tissue, likely a cross-section of a stem, showing various cells and structures. The tissue is stained, with some cells appearing purple and others pinkish. A central text box is overlaid on the image.

그럼 이만, ^^